

오너리스크 “오, 노!”... 상생프랜차이즈 ‘소리없는 성장’

기업 오너의 갑질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확산되는 가운데, 가맹점과 상생하는 ‘건강한’ 프랜차이즈가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너 갑질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영에서 물러난 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의 갑질은 해당 가맹점은 물론 다른 가맹본부에게도 피해를 미쳐 결국 기업 몰락으로 이어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너의 권위 의식을 벗고 가맹점의 성장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광욱 실전창업연구소장은 “보도된 것과 달리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갑질 없이 가맹점과 소비자를 위해 똑심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며 “이들 대표들은 사람을 중시하려고, 가맹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진이찬방은 창업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창업 보상환불제를 시행중이



진이찬방 창업보상환불제도 운영
스시노칸도 공동물류로 마진 높여
티바두마리치킨 할인비 본사 지원
결작떡볶이 가맹과 동등 성장 지향
돈까스잔치 창업비용 낮춰 부담 ↓

다. 이석현 진이찬방 대표는 “가맹점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면서 오픈 이후 매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어드바이스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창업보상환불제는 가맹점 오픈 5개월 이내에 매출 저조로 3개월간 지속적인 적자발생시 본사가 3개월간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사가 지원함에도 2개월 내 영업 적자로 폐점할 경우 시설, 인테리어 비용의 50%를 환불해 준다. 이 대표는 “창업은 각각의 희망과 꿈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맹본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며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만이 건전한 프랜차이즈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밥 프랜차이즈 브랜드스시노칸도는



비창업자들로부터 일식은 전문 요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을 깨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스시노칸도는 70여가지가 넘는 검증된 메뉴로 사계절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아울러 공동물류를 통한 최저가 공급제도로 저렴하게 판매해도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이형락 대표는 “의정부 스시히로미 직영점 운영 노하우를 통해 가맹점도 본점과 같은 물류 구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공동물류를 통해 가맹점의 이익률 극대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마리 치킨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티바두마리치킨은 18년 역사를 가진 브랜드다. 물류, 생산, 가공, 관리,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의 전문화 시스템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여기에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배달어플 할인 프로모션 진행시 할인 금액의 70% 가량을 본사에서 지원해준다. 광고비용도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유상부 티바두마리치킨 대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장 확대에 주력하기 보다는 교육, 물류, 메뉴 확대 등 내부 시스템 강화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떡볶이와 치킨을 컬래버한 치떡세트로 성장세에 있는 결작떡볶이의 모토는 ‘음식으로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사’다. 본사의 명칭도 위드인푸드다. 김복미 결작떡볶이 대표는 “본사 직원의 성장을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등은 결국 가맹점주에 대한 애정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가맹점과 협력업체와의 동등한 성장, 공정한 거래 등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오랜 기간 외식업에서의 경험을 살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탄생한 브랜드는 돈까스잔치다. 박순임 돈까스잔치 대표는 “평생을 모은 재산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돈까스잔치는 2년을 넘은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브랜드”라고 전했다. 메뉴의 품질과 맛은 물론, 고객과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여러 검증을 거쳤다. 올해부터 기존의 중대형 평형대를 유지하면서 가성비 좋은 100㎡(약 30평형)대의 소형 매장에 맞는 메뉴와 인테리어도 개발했다. 창업비용을 낮춰 예비 가맹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췄다는게 장점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5년간 文케어 41조 투입... 건강보험 보장율 62%→70%로

가정 발코니 안전사고 66% 만 1~3세 어린이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MRI, 내년 척추, 내후년 근골격 적용
난임치료 연령제한 없애고 횡수 확대

정부가 오는 2023년 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위해 6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건강보험 보장율을 62%에서 70% 까지 높이고, 어린이와 난임부부, 저소득층의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규모는 총 41조5842억원이다. 이 중 신규로 투입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기대효과 (2019~2023년 계획)

	현재 (기준 연도)	2023년
건강수명	73세 (16)	75세
건강보험 보장률	62.7% (17)	70%
외래의원 횡수 증가율	4.4% (12~16년 평균)	2.2% (19~23년 평균)
입원일수 증가율	3.0% (12~16년 평균)	1.5% (19~23년 평균)
불필요 지출 관리율	급여비의 1.0% (19)	3.0%
건강보험료 소득부과율	88% (16)	95%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	65세	70세이상 (조정 검토)

자료/ 보건복지부

는 금액은 총 6조 4569억원이다. 우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한다. 올해 뇌혈관,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MRI)이 급여전환된데 이어,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 순으로 MRI검사 급여화가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는 올해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다음으로 2020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 순으로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유아와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한다.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중증소아 환자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

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횡수도 확대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으로 적극 회송하고 환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 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만일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장 차원에서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가 필요한 부분 수가를 높여 보상을 확대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야간·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가는 합리적 원가에 기반해 산출하고 행위별 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07~16년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장성 강화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며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집 발코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10건 중 4건이 10살 미만의 어린이들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새시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고 많아
잠금장치 설치 등 보호자 주의 필요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겉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겉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세 미만 어린이 발코니 안전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박인용 기자